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도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질서 정연하게 에누리 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 세상 '아휴,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래?' 하지만,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한 대로 받게 돼 있고, 한 대로 주어지게 돼 있고, 자기가 마음 쓰는 씀씀이에 의해서 주어지고,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남을 때리면 맞아야 하고 사기를 쳤으면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것이 분명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살림살이가 이렇듯이, 정맥동맥이 인간에게 그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듯이, 지구도 역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질서 정연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해야만이 우리의 생각대로 지구도 멋진 지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생각을 잘하고, 작용을 잘하고, 행을 잘하고, 모든 것에 겉으로 허황되게 논란을 부리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만이, 지구에 어떠한 일이 생긴대도, 흠집이 났다고, 병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씻은 듯이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와 같습니다.

지구에서 붙어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몸속에 붙어서 사는 중생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작용을 해 줘야만이 지구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건강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주 천하 모두가 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그 간단한 말이 실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내 몸 하나도 주체를 못 하고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를 못 하고 돌아가는 이런 판국인데 어찌 그 지구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신다면 똑 맞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학자들 다르고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박쥐가 촉각을 일으켜서 오는 음파를 잘 통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두를 가만히 보십시오. 물 하나가 때로는 정말 독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선약이 될 수도 있고, 물 하나가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짐승도 될 수 있고 저 짐승도 될 수 있고, 이 꽃도 될 수 있고 저 나무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고…. 물 하나가 그렇게 변동을 해서 화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말할 때, 물이 변해서 나무가 됐다가 꽃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흙이 됐다가 허공이 됐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조화를 부리는데 어떤 게 됐을 때에 이게 과학자가 지어 놓은 이름이라고 하겠습니까? 약만 하더라도 물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만물이 물 안 먹는 게 하나도 없고, 만생이 물 안 먹는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모두가 변동이 된다 이겁니다. 지구도 물의 일종이죠. 흙과 물, 불, 바람의 일종이죠. 사람만 그렇게 바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구도 그렇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천지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모두 주어진 겁니다.

우리 자체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될 때에 과학자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또 아들이 될 때에 과학자가 '그건 아들이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남편이 될 때에 과학자가 '남편이다' 이럴 수가 있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과학자들도 생각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말로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의 세계의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이치를 어찌 말로 써 놓을 수 있으며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며, 어찌 이거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비유한 것이 아버지, 남편, 아들, 사위 이런 걸로 비유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동시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계발이 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생길 때, 지구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태양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은하계의 별성들도 다 내 몸속의 중생의 별성과 똑같이 이룰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내 몸속 중생 조복시키려면

질문 내 몸속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중생들을 조복시키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를 해야 마지막에 내가 성불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모든 영혼과 그 영혼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찰나찰나에 여러분을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분을 병고로 휘달리게도 하고, 애고로도 나오고, 유전성도 나오고,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까지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 모든 거를 나오는 데다가 되놓을 수 있다면,
> 안 되는 것은 되게 마음을 내서 맡겨 놓고
>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맡겨 놓고
> 이래야만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것을 녹여야 된다 하는 것은 모든 거를 나오는 데다가 되놓을 수 있다면, 안 되는 거는 되게 마음을 내서 맡겨 놓고, 또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맡겨 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일체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참으로 근기가 약하면은 산란해져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일일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맡겨 놓는다면 신경을 쓸 일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몸뚱이 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의 중생도 자기 아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은 잘되게끔 다스리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데로 한마음으로 모아서 내가 마음 쓰는 대로 그것이 법이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화신, 보신, 보현신입니다. 그 법신, 보신 이런 것으로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응신이 돼야, 마지막에 가서 내가 성불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양면의 모든 거를 한군데서 나온다고 믿지 않는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허공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습니다. 땅에서 엎드려졌으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허공을 허우적거린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자기의 업식이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고를 딴 데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지금 나오는 거지요.

이런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야 하고, 듣는 것도 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모든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뒤죽박죽 사는 것 같지만 질서정연하고 조금도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를 갔다 오는지 그걸 몸속의 중생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깐 내 마음이 내 육체 속에 있는 의식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제각기 벌어진다면, 즉 말하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제가끔 논다면 운명팔자를 못 면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다스려서 그걸 하나로 뭉쳐서 한마음으로 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한군데로 모아서 내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문제가 따르죠.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옆구리에 작용하는 그놈들에게 바로 한마음이 되어 주고, 둘이 아닌 까닭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소요소를 진행해 나가면서 모두를 하나로만 들어 줄 수 있는, 리드하는 마음의 주인이 있어야, 이 모든 중생들도 다 리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만이 그 말 자체가 법이 되고, 행 자체가 그대로 법이 된단 얘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생들의 마음이 내 마음을 따라 이렇게 배우고 나가는데, 모든 것이 흡수돼서 그 팔자 운명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게 되는데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마음이 없어지고 그 의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딴 의식으로 돌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보신으로서 응신으로서 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능히 법신이 되고, 응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 중생들이 다 제도가 돼서 자유자재권을 얻어야만이 마지막에 내가 천백억화신의 대표로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소립니다.

그런 거와 동시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동시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계발이 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생길 때, 지구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태양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은하계의 별성들도 다 내 중생과 내 몸속의 중생의 별성과 똑같이 이룰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반항하는 자식 안타까워요

질문 자식 하나가 자꾸 반항을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조용히 타일러 보기도 하고 관하는 것도 일러 주면서 저도 마음을 내는데도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식구들이 잘못하든가 빗나간다든가 하더라도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다 놓으세요. 그쪽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 같거든요. 식구들은 벌써 식구라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 가설이 돼 있죠. 그런데 그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가 놔도 그쪽의 주인공까지 다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한테 '저 사람이 저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모든 것을 놓고 인의롭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준다면 거기도 아주 밝아질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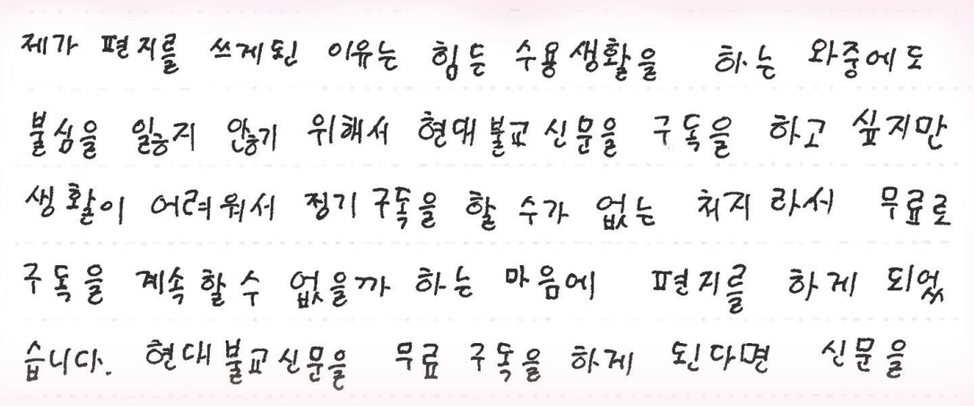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